

## 김석기 관련 뉴스타파 리포트 핵심 내용

---

미국 월가 출신의 첫 한국인 금융전문가,

국내 금융 부터크의 효시,

90년대 후반 우리나라 금융계의 4대 마왕.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에게 따라붙었던 수식어입니다.

배우 윤석화의 남편으로도 유명한 김석기씨는

IMF 금융위기 이후 40대 초반의 나이에

한누리투자증권, 중앙종금의 사장에 오르며 '금융계의 풍운아'로 활약했습니다.

지난 2008년 한 일간지는 김 씨에 대해,

'한국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해서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석기씨는 골드뱅크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금융당국에 고발당하고 검찰에 수배되면서

2000년 8월부터 지금까지 해외 도피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가 입수한 자료에

김석기씨의 이름이 포함된 페이퍼 컴퍼니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90년에 설립된 프리미어 코퍼레이션, 93년에 설립된 PHK 홀딩스와 STV 아시아 2001년에 만든 ZATO 인베스트먼트, 멀티럭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2005년에 만든 에너지링크 홀딩스 등 모두 6개나 됩니다.

90년대 만들어진 법인 3개는 김 씨가 홍콩에서 활동하던 시절과 IMF 이후에 사업상 활용한 법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 법인은

설립 시점이 김 씨가 검찰수배를 피해 해외로 도피한 2000년 이후입니다.

중앙종금이 4천억원이 넘는 부실을 떠안고 문을 닫은 뒤에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겁니다.

또 이 가운데 2개 회사엔 부인 윤석화씨가 각각 이사와 주주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씨가 가장 최근에 설립한 에너지링크 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 설립 서류에는 김씨와 윤석화씨의 주소가 홍콩의 맨해튼 타워로 적혀 있었습니다.

맨해튼 타워는 홍콩 남부 리펄스만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한 채가 우리돈으로 백억원 가량에 거래되는 고급아파트입니다.

김 씨는 이 아파트를 96년에 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링크 홀딩스 란 페이퍼 컴퍼니 자료를 보니 김 씨 부부 외에 다른 두 명의 이사가 더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이수형씨와 조원표씨입니다. 이들의 여권번호까지 기재돼 있습니다.

이들이 김 씨의 페이퍼 컴퍼니에 이사로 등재된 시점은 2006년 8월 31일.

이때는 이 씨가 당시 동아일보에서 삼성의 법무팀 상무보로 옮긴 직후였고 조 씨는 한 코스닥 업체 대표로 근무할 시점입니다.

두 사람은 기자시절 김석기씨를 취재원으로 알게 됐고 김 씨가 해외로 도피한 이후에도 2006년까지 3-4차례 홍콩을 방문해 만난 적은 있으나 같이 사업을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2005년 쯤 김 씨가 컨설팅 업체를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이사로 이름만 걸어달라고 부탁해서 여권번호를 건네줬을 뿐 그것이 페이퍼 컴퍼니인 줄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이 씨도 페이퍼컴퍼니인 줄 몰랐다면서 후배인 조 대표의 부탁으로 별 생각없이 동의했을 뿐 현재 몸담고 있는 삼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부부와 이 두사람 등 4명이 이사로 등재돼 있는 에너지링크 홀딩스의 자본금은 1억 달러까지 납입할 있도록 돼 있습니다. 주당 1달러씩 1억주입니다.

그런데 실체는 1달러짜리 1주만 발행한 것으로 나옵니다.

김석기씨는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페이퍼컴퍼니는 홍콩에서 일반화된 형태”라면서 “외국 기업의 중국관련 사업을 컨설팅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국 런던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 윤석화씨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이메일을 통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던 남편이 아들을 입양한 후 기운을 내어 일을 하려고 애쓰는 상황에서 남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페이퍼컴퍼니에) 이사로 등재했다”며 “버진아일랜드에 대해 잘 몰랐지만 설립을 대행해 준 변호사가 그곳에 설립 등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 전성용 관련 뉴스타파 리포트 핵심내용

---

---

전성용이란 이름의 이 한국인은 통상 페이퍼컴퍼니 설립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나 법무, 회계 법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직접 PTN과 접촉해 유령회사를 차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PTN 내부 기록에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의 중개업자로 기재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 사람이 비밀스런 조세피난처의 세계에 매우 정통하거나, 아니면 그 아무에게도 자신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 이런 방식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의 인물 전성용씨는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싱가포르의 한 은행에 법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전씨가 마지막으로 설립한 ‘인적 자원관리 교육 연구소’라는 이름의 페이퍼컴퍼니 관련 PTN 내부 기록입니다.

PTN 싱가포르 사무실에서 열린 한 미팅을 언급한 이 메모엔 전성용씨가 2009년 1월 22일 은행 계좌를 트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고, OCBC라는 은행 직원이 미팅에 참여해 업무를 지원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OCBC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화교계 은행입니다.

20일 뒤인 2009년 2월 11일자 PTN 메모에는 이 유령회사 명의로 실제 OCBC 은행에 2개 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엔 미국달러와 싱가포르 달러로 나뉘어 개설된

계좌의 번호와 함께 전액을 전성용이 단독으로 관리한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습니다.

또 전화상으로 전씨와 조세피난처 회사 문제를 거론하지 말고, 이메일을 보내라는 등의 내부지침도 있습니다.

한 유령회사로 적어도 2개 이상의 계좌를 만든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전씨가 자신의 전체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만든 은행 계좌를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는 PTN 내부기록에서 발견한 전씨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토대로 그의 정체를 추적했습니다.

전성용이란 인물은 여러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사학재단 설립자의 아들이자, 미국 유명대학에서 교육학 학위를 받은 한 사립대학교 총장과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성용 총장의 아버지 전재욱씨. 그는 경동대와 경북대 등 대학교 두 곳과 고등학교 두 곳을 설립한 인물입니다.

얼마 전 경동대에 통합된 동우대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는 대학교 세 개를 거느린 거대 사학재벌입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에 널리 이름을 알린 것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 이른바 '경문대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1998년 전재욱씨는 후에 경문대로 이름이 바뀐 평택 공과대학을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교비 횡령과 교수 징계로 학내 분규가 폭발하자 학장 자리를 내놨습니다.

전재욱 일가는 이후로도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강원도 원주시 일대 4만 5천평의 농지를 전성용 총장과 학교 관계자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학과도 없는 경북대에 골프장을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33만평의 부지도 매입했습니다.

문제는 땅 구입 자금이 경북대와 동우대의 교비였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용 재산 수익금을 차남의 생활비와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 2005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전재욱씨는 아내와 함께 일본으로 달아났다가 2007년 9월에 귀국합니다. 그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벌금 7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학교 또한 캠퍼스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동대의 경우, 통폐합된 동우대 캠퍼스를 포함, 원주 문막과 양주에 새로운 캠퍼스를 세웠습니다. 경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천 캠퍼스 외에도 남양주에 새로운 캠퍼스를 설립했습니다.

대학교 두 개에 캠퍼스는 여섯 개나 되는 셈입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전총장을 만나지 못한 제작진은 경동대학교 앞에서 일주일간 그를 기다렸습니다.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지만 전총장만을 위한 지정주차석은 한 주 내내 비어있었습니다.

물론 총장실도 비어있었습니다.

PD : 왜 총장님이 한 주 내내 출근하지 않으시죠?

관계자 : 아프니까 못나오시죠. 1년 365일 내내 아프지 말란 법 있습니까?

전성용 총장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 때 철저하게 차명을 사용해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1년 여 동안 4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그가 이들 유명회사를 설립하던 시기가 재산 설립자인 아버지가 검찰 수사를 피해 일본에 도피해 있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과연 전 총장의 페이퍼 컴퍼니와 연결된 해외비밀계좌에는 어떤 돈이 얼마나 흘러들어갔을까요? 혹시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교비는 아니었을까요?

뉴스타파와 ICIJ가 찾아낸 전성용 총장의 유명회사 관련 데이터엔 그가 싱가포르 화교은행 OCBC에 두 개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과 그 계좌번호까지 기록돼 있습니다.

국세청과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총장과 관련한 의문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